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동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치료에서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황 성 하

음악치료에서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 동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황 성 하

인 준 서

황성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에서 치료사가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언제, 어떻게 의미를 지각하며,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지각이 치료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여덟 명의 음악치료사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자료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감수자와 평정팀으로 구성된 합의팀은 먼저 여섯 개 사례를 분석하고 나머지 두 사례를 통하여 안정성 검사를 하여 영역 및 중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음악적 변화, 정서적 변화 등 내담자의 성장으로부터, 그리고 내담자와 음악적 소통과 상호작용, 정서적 소통 및 절정과 몰입 경험 등 관계적 성장으로부터 의미를 지각하였다. 또한 치료사 성장으로부터 의미를 지각하였는데, 이는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 다양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치료사에게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그리고 직업 동기 부여를 하였으며, 치료사는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하여 임상 능력, 음악 기술 향상과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는 요인과, 그것이 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치료사의 노력에 대하여 치료사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사가 자기 탐색과 통찰을 통하여 전문 음악치료사로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의미에 대한 정의	4
2. 음악치료 철학에 따른 의미	7
3. 음악의 역할에 따른 의미.....	12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6
1. 함의적 질적 연구 방법	16
2. 연구 참여자	17
3. 윤리적 고려	18
4. 연구 도구.....	19
5. 연구자, 평정자 및 감수자.....	20
6. 연구 절차.....	22
IV. 결과 및 논의.....	25
1. 결과	25
2. 논의	49

V. 결론 및 제언	52
1. 결론	52
2. 제언	55
참고문헌	56
ABSTRACT	63
부록	65

표 목 차

〈표 1〉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22
〈표 2〉 교차분석 결과	29
〈표 3〉 내담자 성장에 대한 범주 및 중심개념 예시	30
〈표 4〉 관계적 성장에 대한 범주 및 중심개념 예시	33
〈표 5〉 치료사 성장에 대한 범주 및 중심개념 예시	39
〈표 6〉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범주 및 중심개념 예시	44
〈표 7〉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에 대한 범주 및 중심개념 예시	48

부 록 목 차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65
〈부록 2〉 중심개념 코딩의 예	66
〈부록 3〉 교차분석의 예.....	67

I. 서론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인으로서 대상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치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한다(최병철, 2006a). 즉,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치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치료의 대상자인 내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내담자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Priestley, 2006). 그리고 내담자가 가진 어려움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임상적 이해력을 키워야 한다(정현주, 2005; 최병철, 2006a).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에서 치료 중재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을 임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료사는 훈련, 교육과 연구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Bruscia, 2003, 2006; Hanser, 2002; Wigram, Pederson, & Bonde, 2002).

치료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료사 자신에 대한 훈련과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바라보고 지각하는 치료사 자신에 대한 탐색과 통찰이 필요하다(심교린, 2007; Bruscia, 2006; Priestley, 2006). 특히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어떠한 것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러한 것들을 치료사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탐색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는 음악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 자신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치료의 목적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음악치료 연구가 내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Amir(1992)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음악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순간들에서 치료적 과정으로써 의미 있는 순간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녀는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역동의 순간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들과 그러한 순간들을 유발하는 요인, 그리고 그 순간들이 치료사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치료사는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뿐만 아니라, 핵심 중재 요소인 음악 그 자체의 힘에 의해서도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나아가 치료사가 발견하는 의미들이 내담자의 치료 과정과 치료사의 자기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의 선구자적인 연구에도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치료사의 주관적인 현상을 자연 발생적으로 탐색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조직하며, 합의팀을 통하여 객관적 의견 도출에 입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음악치료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이란 무엇인가?

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나. 경험을 할 때 무엇을 느끼는가?

다. 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

라.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의미’의 개념을 다양한 철학을 바탕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음악치료 현장에서 치료사가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음악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미에 대한 정의

의미는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Hessen, 1995). 철학에서 처음으로 의미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사상가는 Kant이다. 그는 의미를 ‘인간 행위에 대한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보았다(송용민, 2007). 당시에 절대적 신의 존재로부터 모든 인간 행위의 목적을 이해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행위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립의 필요가 요구됨으로써 의미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시작되었다. 이어 Feuerbach와 Schopenhauer는 의미에 대하여 ‘가치’와 ‘뜻’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개념은 19세기 말에 철학에만 국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실제적 삶의 상황들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먼저 Dilthey는 정신과학분야에서 의미란 한 개인의 역사인 삶으로부터 내적으로 ‘체험’되며, 그 체험 내용들은 다시 문화 체계를 통하여 ‘표현’되어 ‘객관화’되고, 이는 해석과정을 통하여 ‘이해’된다고 하였다(Hans, 2001). Frankl(2005)은 의미에 대하여

‘인간만이 지니는 고유한 것’으로, 인간만이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며, 이러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며 지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질이라고 하였다.

‘의미’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과 구별되어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Frankl & Frantz, 2006). 따라서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곧 ‘의미’이며, 이 ‘의미’는 ‘목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도 전혀 다른 의미가 추구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의미를 지각하는 주체자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개인이 의미를 찾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로부터 기인한다(Barnes, 2000; Frankl, 2005). 삶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미를 찾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인간에게 ‘동기화된 힘’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적인 현상’이며, ‘내적인 욕망’이다(김찬희, 1991;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이 같은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둘째는 ‘순간적인 의미’이다(Frankl, 2005; Frankl & Frantz, 2006). 인생, 자연, 생태계 등과 같이 어떠한 질서가 있을 때, 인간은 그 질서 속에서 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한 개인으로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게 된다는 차원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이에 반해 순간을 통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순간적인 의미’의 차원이다. 인간은 유한한 동시에 유일한 존재로, 모든 상황, 매 순간을 재현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이 재현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이 순간에 대하여

특별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순간의 의미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르고, 이러한 의미를 제공하는 매 순간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Frankl & Frantz, 2006). 그러므로 매 순간에 삶의 의미와 존재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 가야하며,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 받고, 독특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노력의 동기가 된다(정주리, 이기학, 2007; Barnes, 2000; Fabry, 1993).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치료사가 치료 과정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그러한 의미를 지각하고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내적 욕구이자 동기가 될 수 있다.

2. 음악치료 철학에 따른 의미

의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각은 개인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치료사가 지각하는 치료에서의 의미 또한 개인의 치료 철학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정미영, 2010). 즉, 치료에서 어디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치료사가 치료의 목표와 가치 등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치료 철학에 따라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동주의 치료는 내담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그 목적은 부적절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수정하는 것이다(Corey, 2011; Ormrod, 2009). 행동주의 음악치료(Behavioural Music Therapy)는 특별한 방법론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행동주의 철학의 기본 전제에 입각한 개념과 이론을 토대로 음악 환경을 조성하고, 개입을 설정하는 접근을 의미한다(정현주, 2005; 최병철, 2006a).

음악은 일반적인 행동주의의 기본 원리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강화제, 벌, 조건적 강화제 등의 매개체로써 기능을 한다(Hanser, 2002). 이러한 음악의 사용에 있어서 치료사는 음악의 어떠한 요소들이 각 내담자의 행동에 의미를 주는 정적 혹은 부적 강화제인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는 곧 치료사가 치료에서 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음악의 각 요소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치료사의 음악적 중재를 통하여 내담자의 반응이 유도되고 문제 행동이 수정되는 것과 같은 목적과

관련하여 음악치료사는 의미를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행동주의적인 음악치료가 행동 증상에만 의미를 두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함께 연구되기 시작하였다(정현주, 2006). 음악치료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서와 사고가 음악으로 수정되고 변화한다는 것은 많이 입증되었다(문지영, 권영혜, 2009; 엄선화, 2008; 조현, 2008; Bruer, Spitznagel, & Cloninger, 2007; Gregory, 2002; Kaplan & Steele, 2005; Lesiuk, 2010; Lim, 2009; Madson & Silverman, 2010). 이때 음악은 강화제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모든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반응이 모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행동주의 음악치료와 마찬가지로 인지를 재구성하고, 신념을 변화시키고, 정서를 수정시키는 것과 같은 사고와 인지의 변화가 치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정보처리 방식과 행동적 변화와 같은 치료적 목적에서 치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심리학적 음악치료에서는 Freud의 정신분석, Jung의 분석심리학, Winnicott, Klein 등의 대상관계심리학, 그리고 Kohut의 자기심리학 등을 기반으로 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의 도구로써 음악을 사용한다(Ann, 2007; Wigram et al., 2002). 즉,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억압된 충동을 자각하게 하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내담자의 정신원리를 의식화하고 개성화하여 자기실현을 촉진하게 해주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이다. 이러한 음악치료의 일반적 목표는 무의식적 갈등의 의식화를 통한 건강한 자아구조 확립과 기존의 부정적 대인관계 문제의 해결 및 변화 등이다(김진아, 2005, 2006; Priestley, 2006).

이때 치료사는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적 자기(self)의 실현(actualization)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음악치료에서는 음악 안에서, 또는 음악을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를 자유롭게 투영시키고 반영하는 내담자의 문제들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근거로 음악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순간을 맞이할 때, 치료사는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하고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역동의 다양성을 통하여 잠재력을 계발해 가는 일련의 순간들의 연속체 안에서 치료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Rogers는 치료에서 진솔함, 무조건적 수용, 명확한 공감 이 세 가지를 치료사가 가져야 할 핵심 태도라고 하며, 치료사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치료 관계를 성립하고, 온전한 치료적 관계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가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담자와의 온전한 치료적 관계를 통하여 치료에서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Maslow(2009)는 자기실현(self actualization)을 치료 목표라고 하였다. 자기실현이란 한 개인이 고유한 인간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하고 표현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한 개인의 내면적 본성을 인정하고, 잠재적 능력 및 본질적 가능성을 ‘온전히 기능하는 것(fully functioning)’으로 개발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Maslow는 또한 창조성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 성향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을 제기하며,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이 발현 되는 그 때가 자기실현이 되는 때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창조성을 통하여

자기실현(self actualization)을 추구한다.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예술적 매개체로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내담자는 음악을 통한 창조성 발현과, 창조성을 통한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정현주, 김동민, 2010). 그러므로 음악치료사는 내담자가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깨닫고, 개발하고, 표현하며 자기실현을 이루어 갈 때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실현을 넘어서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 한계화 되었을 때, 자기실현이라는 범위를 초월해서 초월적 체험에 다다르게 된다(김명권 2009). 이때 몰입 경험을 통하여 절정경험, 최적 경험 등을 하게 된다. 몰입(flow)이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어떤 일이나 놀이에 빠져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식 및 정서 상태로써, 어떤 활동이든 몰입이 가능하고 일단 몰입 하면 독특한 심리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Csikszentmihalyi, 2005).

Privette는 몰입을 절정경험(peak experience), 그리고 최고 수행(peak performance)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즉, 절정경험이란 Maslow의 자기실현에서 느낄 수 있는 황홀하고 감동스러운 짧고 강렬한 느낌을 말하며, 최고 수행이란 최고의 성취 상태를 말한다. 몰입 경험은 절정경험과 최고 수행이 합쳐서 나타나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경험으로 이 세 경험들은 강렬한 몰입 상태에서 가능하다(유영달, 2005, 재인용). 치료사는 어떠한 치료철학과 기법을 사용할지라도 치료 행위를 하는 동안 절정 경험과 최고 수행, 그리고 몰입 경험을 통하여 의미 있는 순간,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내담자와 치료사 모두 자기실현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민, 2008; Ahonen & Houde, 2009).

인본주의와 초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음악치료(Creative

Music Therapy: Nordoff-Robbins Music Therapy)에서는 음악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치료의 수행자로 간주하며, 각 개인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음악성을 일컫는 음악 아동(music child)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룬다(Nordoff & Robbins, 2007). 음악 아동은 의미 있는 경험을 찾고, 음악을 기억하며, 음악적 표현의 여러 형태를 즐길 수 있고, 음악적 경험에 반응하는, 창조적이고 건강한 힘이 있는 실재이다. 이러한 음악 아동은 창조적 음악치료 안에서 치료사와 치료적 동맹을 맺고, 여러 장애와 장해를 넘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김동민 2006; Aigen, 2005; Nordoff & Robbins, 2007).

이와 같이 음악 아동의 창조적 힘을 통하여 장애와 장해를 넘어서 내담자의 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창조적 음악치료의 목표이다. 나아가 ‘내적인 성장을 통한 외적인 변화’까지 목표로 본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때 치료사는 내담자가 가진 창조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하여 즉흥음악을 사용하여 내담자와 음악적 관계 즉, 치료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다. 이 모든 것은 연속된 행위이고, 내담자의 개별적인 음악적 반응의 깊이와 강도에 따라 다양하므로(Ansdell, 2002), 치료사는 이러한 다양한 순간들에서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 유도와 음악(Guided Imagery and Music: GIM)에서도 치료사는 다양한 순간들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것이다. GIM이란 음악의 심미적 경험보다 음악으로 유도된 다른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심리치료방법으로(Summer & 정현주, 2006), 인간 내면의 탐색과 자기 이해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GIM에서 치료사는 개인이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찰하는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음악의 역할에 따른 의미

음악치료 안에서 음악은 치료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치료사의 철학과 기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Bruscia(2003)는 음악을 그 역할과 비중에 따라 ‘치료에서 음악(music in therapy)’과 ‘치료로서 음악(music as therapy)’으로 분류하고 이를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음악이 사용되는가 보다 치료사가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관점의 차이이다(정현주, 김동민, 2010). ‘치료에서 음악’적 관점에서 ‘치료사’는 ‘주체’이지만 ‘음악’은 ‘객체’인 관계인 반면, ‘치료로써 음악’적 관점에서는 ‘치료사’와 ‘음악’ 모두 ‘주체’이다. 이 장에서는 치료사의 음악에 대한 관점이 의미 있는 순간에 따를 수 있는 의미의 차이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치료에서 음악(music in therapy)

‘치료에서 음악’에서 치료사는 주체인 반면 음악이 객체이다. 즉, 음악은 치료적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치료사는 음악을 치료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며, 이 때 음악의 역할은 치료사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정현주, 김동민, 2010).

앞서 살펴본 행동주의 음악치료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 밖에도 심층심리학적 음악치료 중 정신분석에 근거한 음악치료, 분석적 음악치료가 있다. 이러한 ‘치료에서 음악’에서 치료사는 음악적 경험이나 관계, 그리고 언어적 관계, 행동적 변화 등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생의학적(biomedical) 치료에 바탕을 둔 신경학적 음악치료(Neurologic Music Therapy)가 있다. 이 모델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은 치료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신경학적 음악치료에서는 대체로 뇌 손상 환자들의 언어, 인지, 신체 영역의 재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이승희, 2006; Thout, 2005),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재활을 위한 치료의 매개체로 사용할지라도, 치료사의 감정과 관계, 음악적 소통 및 음악적 경험을 주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사는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와 수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치료로서 음악(music as therapy)과 음악중심 음악치료(music-centered music therapy)

‘치료로써 음악’은 ‘치료에서 음악’과는 달리 음악이 치료의 일차적 매개체나 수행자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치료로써 음악’에서 음악은 능동적인 주체의 지위를 갖게 된다. Aigen(2005)은 ‘치료로서 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음악중심 음악치료(music-centered music therapy)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음악중심 음악치료라는 용어는 원래 1980년대 중반 Bonny재단 연구소 이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용어를 누구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Aigen(2002)은 ‘언어에 기초한 치료들로부터 음악을 사용한 치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치료의 핵심으로써 음악을 사용하거나 또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써 음악을 사용한 모든 치료들’이라고 광범위하게 이를 정의하였으며, Lee(2003)는

‘음악중심이라는 것은 음악을 치료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Aigen(2005)은 성격이론이 심리치료를 뒷받침 하듯 음악치료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의 저서 ‘Music centered music therapy’를 통하여 음악중심 음악치료 이론의 필요성과 특징,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가치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음악중심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였다.

Aigen(2009a)은 음악의 힘, 경험, 과정,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음악치료 과정의 메커니즘을, 음악중심 음악치료의 토대 위에 세워가면서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음악중심 음악치료의 기본 전제를 ‘사람은 근본적으로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고, 음악 안에서 선천적인 창조성에 대한 열망이 있는 내담자의 경험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음악중심 음악치료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큰 핵심은 musicing(Elliot, 1995)이라고 설명하였다.

음악 하기(musicing)는 음악 만들기(making music) 또는 음악적 활동 하기(musical activity)등의 일반적 음악 활동의 개념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악만이 줄 수 있는 특수하고 독창적인 경험과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Elliot(1995)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Elliot는 musicing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의 경험이며, 자기발전, 자의식, 즐거움이 음악을 만드는 주요 이유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치료사는 musicing 자체로 온전히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Musicing을 음악중심 음악치료에서 살펴보면, 앞서 Aigen이 말한 바와 같이 음악과 음악의 힘에 대한 믿음에 그 철학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Robbins, 2005). 즉, 음악중심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예술 이상이고, 대화의 수단이며, 치료를 위한 중재 도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음악중심 음악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사의 음악적

관계가 곧 치료적 관계'가 되며, '음악적 목표 그것이 바로 치료적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음악중심 음악치료의 핵심은 '음악적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치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중심 음악치료에서 치료 목적은 내담자가 음악과 음악적 경험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음악 중심적 사고에서는 치료적 결과보다 치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음악 하는 과정 동안 유일하게 잠재적 기술, 능력, 기능 등의 경험을 가지기 때문이다(Aigen, 2005).

치료사는 내담자가 음악과 음악적 경험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때 각 치료 모델과 그 모델에서 지향하는 치료적 목적에 따라 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악중심 음악치료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사에게는 내담자와 음악적 경험의 순간들과,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음악 경험 전체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어떠한 현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이며 욕구이지만, 각 개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의미를 지각하는가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에서 치료사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기이겠지만,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은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연구자가 이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의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보고, 진행된 연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는 질적 연구에서 보일 수 있는 기술의 모호함,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사용의 어려움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Hill, Thomson과 Williams(1997)가 Giorgi의 현상학적 이론과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그리고 Elliot의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를 결합하여 개발한 연구 방법이다. CQR은 자연 발생을 그대로 탐색할 수 있고, 현상을 깊고 풍부하게 조직화 할 수 있으면서 주관성보다는 합의적 다수의 객관적 의견도출에 입각하여 영역과 중심 개념들을 도출하고 통합시키는 과정을 가진다. 특히 반복연구가 가능하고 과학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을 보완하고자 다수의 연구자들과 함께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사례들 사이의 결과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하며, 자료 분석에서 참여자 진술의 내재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료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 자체를 토대로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명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Hill, et al., 1997; Hill, Thomson, Hess, Knox, Williams,

& Ladany, 2005).

이 연구에서는 CQR을 통하여 음악치료에서 치료사가 의미 있는 순간을 언제, 왜, 어떻게 지각하며, 그러한 경험이 이후에 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로써 음악치료에서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지각을 다각적이며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치료사를 연구함으로써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공통된 개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CQR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연구주제와 적합한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분명하게 구두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다(Hill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 표집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었다. 첫째, 음악치료 인턴 과정을 이수한 석사 수료생 이상인 자, 둘째, 현재 음악치료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악치료사이다. 특히 음악치료사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이 개인의 임상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치료사 개인이 가지는 주된 이론적 배경과 치료 철학은 졸업한 학교의 이론적 배경에 크게 의존한다는 연구에 따라(최병철, 2006b),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원을 졸업한 음악치료사로 그 구성을 다양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음악치료 석사 과정을 수료 하였거나, 석사 학위를 소지한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치료사의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연구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다.

그 중 아홉 명을 선정하였고, 한 명은 심층면담 질문지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면담을 실시 하였으며, 나머지 여덟 명은 본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예비면담을 포함한 참여자와의 면담은 2011년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 7명, 남자 1명이며, 연령은 27~45세(평균 33세)였다. 음악치료 임상경력은 실습을 제외하고, 인턴을 포함하여 9개월~9년(평균 3년 6개월)이었다. 학부전공은 음악관련 전공자 6명, 비전공자 2명이었으며, 석사 과정 수료 2명, 석사 졸업 3명, 그리고 박사 과정 3명이었다. 석사과정 출신학교로는 서울 소재 A대학원 출신 3명, B대학원 출신 2명, C대학원 출신 2명, D대학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되었다.

3. 윤리적 고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면접 내용이 녹음되어 요약될 것이며,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부록 1 참조). 또한 면접 전에 말하기 힘들거나 원하지 않은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철회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2차 면접의 경우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을 마친 모든 사례에는 번호가 부여되었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사례번호로

처리되었다.

4.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위한 면접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관련 문헌(김동민, 2009; 김영신, 2010; 윤주향, 2010; Hill et al., 1997; Hill et al., 2005; Kim, 2009)을 개관하고, 반 구조화된 개방형 면접 질문지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질문이 정보를 잘 얻도록 명료한지 확인한 이후에 연구에 대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심층면담 질문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준비’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은 제작된 면접질문지를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질문의 순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참여자들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면접질문지의 내용과 연결하였다.

〈표 1〉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인적 사항	나이, 성별, 학력, 출신학교, 음악전공 여부, 임상경력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의미 있는 순간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였나요? 그러한 경험 중에서 특히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미 있는 순간이 경험될 때 치료사로서 느낌이
어떠했나요?

의미 있는 순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준비 이 경험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5. 연구자, 평정자 및 감수자

이 연구의 합의팀은 연구자를 포함한 평정자 세 명과 감수자 한 명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자들은 앞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치료사 개인이 가지는 주된 이론적 배경과 그 치료 철학이 졸업한 학교의 이론적 배경에 크게 의존한다는 연구에 따라(최병철, 2006b), 성신여자대학원 출신인 연구자 1명을 포함하여, F대학원 출신 1명, G대학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치료 석사 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로서 준비를 위하여 석사 과정에서 두 학기에 걸쳐 음악치료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음악치료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F대학원 출신의 평정자는 음악치료 석사학위 취득 후,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음악치료사로, 현재 약 2년 동안 특수 아동 전문 음악치료사로 활동 중이다. 이 평정자는 석사 학위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한 학기 수료하였으며, CQR 연구에 평정자로 참여한 바 있었다. G대학원 출신의 평정자는 음악치료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음악치료학회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정신과 전문 음악치료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음악치료 대학원에 출강 중인 이 평정자는 박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고, 사례 연구로 질적 연구 학술 발표를 하였지만, CQR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질적 연구와 CQR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영역, 중심개념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Hill 등(1997)과 Hill 등(2005)의 저널을 중심으로 감수자와 함께 CQR 방법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함께 연구 모임을 가졌다.

감수자는 미국 자격증 협회 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증, 뉴욕 주정부 공인 예술치료사 자격증,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Nordoff-Robbins Music Therapy) 훈련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까지 약 14년의 임상 및 훈련 경험을 가진 전문 음악치료사로써 현재 음악치료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CQR 방법론으로 심리학 박사학위와 표현예술치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CQR을 여러 차례 감수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다.

CQR에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평정자 및 감수자도 결과 도출의 전 과정에 참여하므로 그들의 편견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ill et al., 2005). 따라서 자료의 분석 및 결과 도출에 앞서 이 논문 주제와 관련한 각자의 기대와 편견, 선입견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음악치료사는 특히 내담자와 음악적 관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내담자가 치료사에게만 보이는 모습들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사가 의미를 지각할 때 치료사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것이다’는 편견이 있었다. 평정자들은 ‘내담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와, ‘내담자부터 기인한 의미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치료사가 느끼는 보람과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 의미 있는 순간일 수 있다’는 편견이 있었다. 또한 ‘의미 있는 순간은 치료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등도 있었다. 감수자는 ‘누구나 의미 있는 순간을 갖겠지만, 그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내용은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 다를 것이다’는 편견이 있었다.

6.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연구팀 구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단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CQR의 구성과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합의팀 구성 단계였다. 합의적 과정을 진행하는 평정팀은 그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개방적으로 불일치에 대하여 논의하기 때문에, 누구도 너무 수동적이거나 지배적이지 않아야 하며, 너무 유사한 접근을 가지거나 또는 너무 다르지도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팀원들은 체계적인 편향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자료는 보다 높은 신뢰성으로 구성되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정팀은 전혀 친분이 없는 각 대학원 출신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수자로부터 평정팀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자료 분석 작업을 할 때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감수자는 일차 팀의 작업을 점검하고 세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교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차례 CQR 감수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감수를 하였다.

두 번째로 자료 수집 단계였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심층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MP3 Player로 녹음되었으며, 녹음한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청취하여 필사하였고, 개인 정보를 삭제한 후 사례 번호를 붙여 필사본을 만들었다. 필사본 사본은 면담 참여자가 다시 검토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가감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자료 분석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유사한 내용들을 분류하거나 묶는 영역(domain) 코딩을 하였다(Hill et al., 2005). 평정자들은 문헌과 면접 질문지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작업한 후 함께 모여 자료의 적합한 영역에 대하여 영역 분류 작업을 하였고,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이때 영역이 새롭게 재정의 되거나 삭제되기도 하며, 다른 영역과 재결합되기도 하였다. 영역 코딩 이후에 중심 개념(core idea) 코딩을 하였는데, 이것은 참여자가 어떤 영역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핵심적인 몇 마디로 명료화하는 과정이다(Hill et al., 2005). 평정팀은 각 영역 내용을 중심개념으로, 자료가 의미하는 함축적 내용보다 자료자체의 명백한 의미에 더 충실하게 요약하였다(부록 2 참조). 우선 여섯 사례를 먼저 영역 코딩과 중심 개념 코딩 작업을 하고 감수자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감수는 모든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으로 분류되었는지, 원자료가 모두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는지, 중심 개념이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Hill et al., 2005). 감수자가 검토한 자료를 받은 후 평정팀이 모여서 다시 수정하고 합의하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나머지 두 사례에 대하여 안정성 검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을 범주화하여, 각 사례들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차 분석을 하였다. 각 영역에서 유사한

중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빈도를 표시하였다(부록 3 참조). Hill 등(2005)은 각 범주가 얼마나 빈번히 전체 표본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전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범주,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면 전형적인 범주, 사례의 절반 미만에서 나타나면 변동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7~8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5~6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 4사례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평정팀이 교차분석에서 합의에 이른 내용을 다시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 중심개념이 특정한 범주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이후 평정팀은 수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여 합의를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결과

여덟 개의 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1)내담자 성장, 2)관계적 성장, 3)치료사 성장, 4)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 5)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 등 총 다섯 개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내담자 성장’과 ‘관계적 성장’은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의 요인에 관한 영역이다. ‘치료사 성장’은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요인과 동시에 치료사의 반응에 관한 영역이다. 또한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은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나타낸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은 그러한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하여 치료사가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영역이다.

다섯 개의 영역에 대한 범주는 총 18개가 도출되었다. 내담자 성장은 ‘음악적 변화’, ‘정서적 변화’, 그리고 ‘인지적 변화’로 범주가 도출되었다. 관계적 성장은 ‘음악적 소통’과 ‘상호 작용’, ‘정서적 소통’, 그리고 ‘절정과 몰입 경험’으로 범주가 분류되었다. 치료사 성장은 ‘감동’, ‘심미적 경험’, ‘인정’, ‘보람’, 그리고 ‘즐거움과 몰입’ 등 총 다섯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는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그리고 ‘직업 동기부여’ 등으로 범주가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은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 ‘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등으로 범주가 도출되었다. 빈도는 각 영역 내

범주들이 나타난 사례 수를 나타낸 것이며, 7-8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일반적, 5-6개는 전형적, 4개 이하는 변동적으로 표기하였다(표 2 참조).

〈표 2〉 교차분석 결과

영역 (Domain)	범주 (Category)	빈도 (Frequency)
내담자 성장	음악적 변화	일반적(7)
	정서적 변화	전형적(5)
	인지적 변화	변동적(3)
관계적 성장	음악적 소통	일반적(8)
	상호 작용	일반적(7)
	정서적 소통	전형적(6)
	절정과 몰입 경험	전형적(5)
치료사 성장	감동	일반적(8)
	심미적 경험	변동적(4)
	인정	변동적(4)
	보람	변동적(3)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	즐거움과 몰입	변동적(3)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일반적(7)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일반적(7)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	직업 동기 부여	전형적(6)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	일반적(8)
	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	변동적(4)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변동적(4)

1) 내담자 성장

내담자 성장은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의 요인이 내담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에 관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1)음악적 변화, 2)정서적 변화, 3)인지적 변화 등 총 세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3 참조).

〈표 3〉 내담자 성장에 대한 범주 및 중심 개념 예시

범주 (Category)	중심 개념(Core Idea) 예시
음악적 변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음악 안에서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거를 내가 알게 됨.
정서적 변화	그 분이 ‘왜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졌는지’를 다 토해내고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림.
인지적 변화	치료사가 하자고 얘기 했을 때, 자기 의견도 내고, 뭔가 하려는 의지와 동기가 보임.

① 음악적 변화

교차분석 결과 ‘음악적 변화’는 7 사례에서 나타나 일반적 범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음악 안에서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거를 내가 알게 됨(사례 A)’, ‘vocal interaction을 유도하는 노래에서 내담자가 그 space에 반응을 함(사례 D)’, ‘전혀 노래를 따라 하지 않던 아이가 인사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함(사례 E)’, ‘발성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는데, 아이가 듣고 있다가

‘랄랄라’라고 노래를 시작함(사례 G),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때려 부술 듯한 즉흥연주를 함(사례 H)’ 등이 있었다. ‘음악적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제 그 어떤.... vocal interaction을... 유도하는 그... 노래를 했을 때.. 개가 딱 고.... space만 되면은 바로 반응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개가 다른 일들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집중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계속.. 굉장히 음악이 계속 개를 touch를 했죠.(사례 D)

전혀 뭐.. 노래를 따라 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던 아이인데, 이제부터가 인사 노래를 이제... 막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사례 E)

발성 연습....을 어느 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이제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식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날 기분이 좋아서인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 ‘랄랄라..!’ 그런 식으로 노래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사례 G)

많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의 그런.. 즉흥연주.. 막 때려 부술 듯한.. 그런 즉흥연주도 하셨고... (사례 H)

② 정서적 변화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를 지각하면서 의미 있음을 지각하였는데, 이 범주는 총 5 사례에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아동이

무표정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고 나서 표정이 변화된 순간(사례 B)', '어느 순간엔가 아이가 웃는 모습이 보임(사례 E)', '올 때는 남에 이끌려서 왔지만, 마치고 갈 때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서지 않음(사례 F)', '그 분이 왜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졌는지를 다 토해내고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림(사례 H)' 등이 있었다. '정서적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올 때는 정말.. 남에 이끌려서 왔지만, 그 자리를.. 그 시간이 끝나고.. 마치고 갈 때에는.. 거의 다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으셔요... 네!... 그.. 쉽게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분들 한테는.... (사례 F)

그 분이..... '왜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졌는지!..'에 대한 아픔을... 다 토해내시더라고요... 세션 가운데... (중략) 처절하게 울음도 터뜨리셨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다 토해내셨을 때... (사례 H)

③ 인지적 변화

음악치료사는 치료에서 내담자의 인지적 변화를 인식하였을 때에도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였는데, 인지적 변화는 총 3 사례에서 나타나 변동적인 사례로 분류되었다. '치료사가 하자고 얘기 했을 때, 자기 의견도 내고, 뭔가 하려는 의지와 동기가 보임(사례 B)', '처음에 너무 하기 싫어하던 아이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낌(사례

F)'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음악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를 통하여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지적 변화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고 있었다.

2) 관계적 성장

관계적 성장은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의 요인이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에 관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1)음악적 소통, 2)상호 작용, 3)정서적 소통, 그리고 4)절정과 몰입 경험이 있다(표 4 참조).

<표 4> 관계적 성장에 대한 범주 및 중심 개념 예시

범주 (Category)	중심 개념(Core Idea) 예시
음악적 소통	그냥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관계 맺는다는 것이 좋음
상호 작용	놀이나 음악을 같이 하려고 하면 저항하고 밀어내던 내담자에게 치료사가 조금씩 질문을 할 수 있게 됨
정서적 소통	내담자가 팔을 움직여 토닥거려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표현으로 웃어준다든지, 기대어 부벼 줌.
절정과 몰입 경험	장애나 질환에 상관없이 음악 안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함.

① 음악적 소통

교차분석 결과 ‘음악적 소통’은 8 사례에서 모두 나타나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단순한 노래에 반응해서 나랑 악기 연주를 하고, 처음으로 스스로 이런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함(사례 A)’, ‘그냥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관계 맺는 것이 좋음(사례 C)’, ‘치료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의 음악 안에 들어감(사례 D)’, ‘컨디션이 안 좋아서 쥐어 뜯고, 소리 지르던 아이에게, 기타를 잡고, 4마디 패턴으로, 천천히, 조용하게, 허밍으로 연주하니깐 아이가 힐끔 쳐다봄(사례 E)’, ‘반응이 없던 내담자에게 피아노로 Blues를 치고 멈추자 아이가 계속 하라고 손짓함(사례 G)’, ‘즉흥연주를 하는 중에 말 없이 제 어깨에 기대주심(사례 H)’ 등이 있었다. 다음은 ‘음악적 소통’의 예이다.

정말 단순한 노래였는데, 거기에 반응을 해서.... 막 나랑 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중략) 본인이 처음으로 스스로 이.. 이런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그때가 의미 있었거든요. (사례 A)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song writing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할 때도..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면 할 수 없는 얘기를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중략)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음악 안에서 만난다는 느낌 (사례 C)

그니까 아무래도.. 이방인 취급하거나... 나를..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두거나..하면서.. 어떤...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 그 정말 치료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아이의 음악 안에 들어가고, (사례 D)

자폐 1급...인 어..... 7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그니까... 어떤 시도를 해도 반응을 잘 안 보였던 아이였는데, 그냥 제가 이젠... 할 게 없으니까... 피아노로 그냥... 그 뭐지.. blues 리듬을 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까이 오더니... 그니까 건반..을 계속 치고 제가 멈추니까.. 계속 치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사례 G)

② 상호 작용

상호 작용은 비음악적 소통이며 정서적인 소통이 아닌 것으로 총 7 사례에서 도출된 일반적 범주이다. ‘상호 작용’의 중심 개념으로는 ‘여기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경험함(사례 B)’, ‘치료사가 주는 사람이 아니고, 치료사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치료사랑 내담자랑 동일한 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됨(사례 C)’, ‘놀이를 하거나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 저항하고 못하게 하던 내담자에게 치료사가 조금씩 질문 할 수 있게 됨(사례 D)’, ‘소통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을 때(사례 H)’ 등이 있었다. ‘상호 작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치료사가 주는 사람이 아니고, 치료사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치료사랑 내담자랑 동일한 관계...라는 것을 느꼈던 거 같아요. (사례 C)

놀이를 같이 하거나, 음악을 같이 만들려고 하면 절대 인제 못하게!! 저항... 하고 저를 이제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분명했어요..... (중략) 그러다가 인제.. 조금씩 제가..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례 D)

제가 굳이 저지하지 않아도... 그냥 딱 알아서 어... ‘내 차례가 끝났구나! 선생님 할 차례예요!’ 진짜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사례 G)

소통!! 네.. 소통되는 그 순간..!! 어..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딱!! 이루어졌다고 내 안에 느껴졌을 때..!! (사례 H)

③ 정서적 소통

정서적 소통은 치료사가 내담자와 정서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는 범주로 총 6 사례에서 나타났다. ‘음악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도 내담자와 소중한 이야기를 나눴음을 느낌(사례 C)’, ‘아이가 스토리를 만들자고 처음으로 말함, 개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story telling에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함(사례 D)’,

‘아이가 너무나 편안해 하면서 저한테 엄마라고 부름(사례 F)’, ‘내담자가 팔을 움직여서 토닥거려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표현으로 웃어준다든지 기대어 부벼 줌(사례 H)’ 등이 중심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서적 소통’의 예이다.

‘오늘은 내가 널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개가 자기랑 같이!! 스토리를 만들자고.. 어... 그렇게 한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어..... 마지막에... 그 때.. 되게... 되게 의미 있었죠..... (중략) 이제 개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story telling에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의미 있는 경우만 얘기하면 그것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사례 D)

그런 아이들이 막 음악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편안해 하면서... 음..... 어떤 한 애는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저.. 굉장히 놀랐는데!! 어... 애가... 저한테 이렇게 막 전이..... 완전한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사례 F)

어... 그러고서는 팔을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토닥거려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표현은 웃... 웃어준다든지, 이렇게 기대서 부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인데, 그런... 그.. 해주더라고요.. (사례 H)

④ 절정과 몰입 경험

절정과 몰입 경험도 치료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적 성장에서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 이 범주는 5 사례가 나타났으며, ‘세션을 걱정하다가 시작했는데, 아동이랑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몰입하는 순간(사례 B)’, ‘장애나 질환에 상관 없이 음악 안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함(사례 C)’, ‘peak experience가 있고, 아동도 마찬가지로 그 때 굉장히 몰입하는 경험이 남다른 거 같고, 끊임 없이 지속됨(사례 D)’, ‘연주에서 climax도 내담자와 저와 소통이 됨(사례 F)’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예는 다음과 같다.

오늘 세션 어떡하지? 어휴...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해! 이렇게 하다가... 세션 딱 시작했는데, 그 아동이랑... 같이 세션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몰입하는 순간?... 그.. 순간... 들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사례 B)

Peak experience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아동도 그렇고.. 그 때, 굉장히 몰입하는 경험이 남다른 거 같아요... 굉장히 몰입하고..... 음..... 어떤 끊임이 없이 계속 지속되고..... 음..... 네.. 그 peak experience가 되게.. 그런 거 같고... (사례 D)

이와 같이 내담자와 치료사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음악적 소통, 상호작용, 정서적 소통, 그리고 절정과 몰입 경험 등 전반적인 관계적 성장을 통하여 음악치료사는 의미를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치료사 성장

치료사 성장은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치료사의 반응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순간의 요인이 치료사 임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즉, 이전 두 영역이 내담자의 성장과 관계적 성장에서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면, 이 영역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지각되는 치료사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치료사 성장이 곧 치료사에게 다시 의미 있는 순간임을 지각하게 하는 한 요인인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1)감동, 2)심미적 경험, 3)인정, 4)보람, 5)즐거움과 몰입 등이 범주로 도출되었다(표 5 참조).

〈표 5〉 치료사 성장에 대한 범주 및 중심 개념 예시

범주 (Category)	중심 개념(Core Idea) 예시
감동	울컥한 순간이 있었고, 노래하면 목이 매일 정도였고, 내가 힘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눈물이 맺힘
심미적 경험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완벽하며, 임상적으로 내담자 반응을 맞춰주고 요구를 들어주는 걸 느낄 때 최고로 의미가 있음
인정	그런 모습을 따님이 보고 좋아하시면서 울고, 많이 놀라심
보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료사로써의 보람을 느낌
즐거움과 몰입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here and now를 즐기고, 그 순간에 몰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음

① 감동

교차분석 결과 ‘감동’은 8 사례에서 모두 나타난 일반적 범주로 나타났다. 중심개념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이렇게 터져나오름을 느낌(사례 A)’, ‘오늘 내담자와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서 감사하다고 생각함(사례 C)’, ‘울컥한 순간이 있었고, 노래하면 목이 매일 정도였고, 내가 힘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눈물이 맺힘(사례 E)’,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낌(사례 G)’, ‘그 순간의 느낌이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값지다고 생각함(사례 H)’ 등이 있었다. 다음은 ‘감동’에 대한 예이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중략)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함께 음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사례 C)

음... 그 때..의... 뭐.. 이거를 뭐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사실은 약간.... 약간 울컥하는 정도의.. 약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제가 노래하면 약간 목이 매일 정도였어요!! 목이 매여서..... (중략) 내가 힘을 줄 수 있구나!! 내가 변화를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약간.. 좀.... 눈물이 맺힌 것도 사실이고.. (사례 E)

아.. 저는 약간... 그... 표피가 딱! 이렇게 곤두선다고 그러죠!! 이렇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딱.. 딱..

이거!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사례 H)

얼마나 그게 소중한고, 값진 것이고... 또 그 순간을... 그 순간....에
그... 마.... 그 느낌은....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게... 저는 되게 값지다고 생각하고요...
(사례 H)

② 심미적 경험

심미적 경험은 4 사례에서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완벽하며, 인상적으로 내담자 반응을 맞춰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최고로 의미가 있음(사례 A)’, ‘미적인 느낌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주는 것임(사례 B)’, ‘제가 제공한 목소리에 담긴 감정들과 즉흥적으로 나온 멜로디와 기타 선율이 그 아이들의 순간의 감성과 맞아 떨어진 순간(사례 G)’ 등이 있었으며, 다음은 예이다.

심미적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구조적으로도 너무 완벽..하면서... 인상적으로 정말! 정말!..... 그 내담자 반응을 딱딱 맞춰주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완전히!! 최고... 최고로.. 의.. 의미... 있죠!! 나에게..... (사례 A)

어.. 정말 그 날의 분위기와 제가 제공해 준 제 목소리에 담겨 있는 그 뉘앙스? 감성? 그런 것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 걸.. 통해서

즉흥적으로 나왔던 그 멜로디와.. 기타 선율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아이들의.. 그 순간의 감성이 맞아 떨어진 그
순간이 그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례 G)

③ 인정

‘인정’도 치료사의 성장에서 총 4 사례에서 도출된 변동적 범주이다.
이 중심 개념에는 ‘아동이 억압되고 상한 감정을 풀어낼 수 있고, 상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심(사례 D)’, ‘어머니께서
아동이 인사 노래를 혼자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심(사례 E)’,
‘그런 모습을 따님이 보고 좋아하시면서 울고, 많이 놀라심(사례 H)’
등이 있었다. 다음은 ‘인정’의 예이다.

부모..랑... 미팅도 했었는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중략) 개가
어딘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렇게
감정이 억압되거나... 어떤 감정.....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는 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례 D)

일정 회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 그룹에 다른 사람..도 오라고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략)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올텐데... 왜..... 안 왔을까...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서..... (사례 F)

④ 보람, 즐거움과 몰입

치료사의 성장에서는 ‘보람’, ‘즐거움과 몰입’ 등의 범주가 더 도출되었지만, 이 범주들은 모두 3 사례 이하의 변동적 사례로 나타났다. ‘보람’에는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변화가 느껴지고 그를 통해서 보람을 느꼈을 때임(사례 E)’와 ‘그런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료사로써의 보람을 느낌(사례 F)’ 등이 있었고, ‘즐거움과 몰입’에는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here and now를 즐기고, 그 순간에 몰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음(사례 C)’, ‘그러한 것을 느낄 때 저도 같이 즐거움(사례 F)’ 등이 있었다. ‘몰입’은 앞서 살펴본 관계적 성장에서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반응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치료사는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면서 일반적으로 감동을 느끼지만, 각 음악치료사가 느끼는 것은 심미적 경험, 인정, 보람, 즐거움과 몰입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4)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은 치료사가 내담자의 성장, 관계적 성장, 그리고 치료사의 성장에서 지각한 의미 있는 순간이 그 이후에 치료사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1)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2)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그리고 3)직업 동기 부여 등이 범주로 도출되었다(표 6 참조).

〈표 6〉 의미 있는 순간이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범주 및 중심 개념 예시

범주 (Category)	중심 개념(Core Idea) 예시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음악치료가 정말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음악의 힘과 그 힘에 대한 확신이 생김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생각함
직업 동기 부여	좌절을 겪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됨

①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의미 있는 순간에 치료사에게 미친 영향 가운데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총 7 사례로 일반적인 범주로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음악치료가 정말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음악의 힘과 그 힘에 대한 확신이 생김(사례 D)’, ‘반신반의 했던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게 다 음악에 힘이 있는 거라고 느낌(사례 E)’, ‘표정도 안 좋고, 억지로 온 사람처럼 앉아서 안 하시던 분이 참여 안 할 수 없이 이끌림은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사례 F)’, ‘음악야를 건드린 순간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음(사례 G)’, ‘임상에서 음악의 힘이 엄청나다느 걸 느낌(사례 H)’ 등이 있었다. 다음은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예이다.

정말 음악치료...가 정말 변화에 도움을 주는구나! 그걸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그거에 대한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음악이... 정말 아이들... story telling이나 상상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구조를..... 마련해주는..... 그런 음악의 힘?...에 대한 확신? 두 경험 다...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 D)

사실 저도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게 될까!! 아.. 이게.... 이 아이에게 이게 될까!! 혼자 박수 치거나.. 이런 행동들이..... 이게..... 근데 딱! 이게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되는 거구나! 하하.. 내가 아직 경험이..... 경험이 없어서 이게.. 이런 거지.. 다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음악에 힘이 있고! (사례 E)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안 좋고, 거기.. 막... 정말 억지로 끌려온... 뭐처럼... 이렇게 막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활동 참여도 별로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회기가 거듭되면서, 어.. 이제.... 저..... 그.. 본인도 참여 안 할 수.. 없이.. 이끌림...에 의해서..... 하하.. 그게 음악의 힘이겠죠!.. (사례 F)

②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교차분석 결과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은 앞서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마찬가지로 총 7 개의 사례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중심개념으로는 ‘나의 능력이 확인되고, 치료 안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사례 A)’,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생각함(사례 B)', '음악을 함께 만들고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향상됨을 느낌(사례 C)', '이걸 통해서 음악치료사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함(사례 E)', '아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아이한테 뭔가를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신뢰가 생김(사례 G)',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치료하게 되는 활력소가 되며, 에너지 원이 되고, 원동력이 됨(사례 H)' 등이 있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고, 뭔가... 이렇게 몰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자존감 향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 음! 음악을 하면서는 항상 부족... 하다고만 느꼈었는데... 함께 만들면서... 함께 만들고, 또 그런.....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나의 자존감 향상? 자신감 향상? 이게 좀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런...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사례 C)

③ 직업 동기 부여

직업 동기 부여는 치료사가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고 난 이후에

치료사에게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도출된 범주 가운데 한 가지이며 총 6 사례에서 나타난 전형적 범주이다. ‘직업 동기 부여’의 중심 개념으로는 ‘좌절을 겪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됨(사례 A)’, ‘내가 음악치료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됨(사례 B)’,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계속 하려는 마음이 들(사례 C)’, ‘음악치료에서 계속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사례 E)’, ‘우리나라 현실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느낌(사례 F)’, ‘그런 순간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으면 음악치료를 그만 두었을 것임(사례 G)’ 등이 있었다. 다음은 ‘직업 동기 부여’의 예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음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계속 하려는 마음이 들고, 계속 하려고 있지 않을까... (사례 C)

이제.. 음악치료사로써 활동하는 게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현실에서 그렇게..... 음.....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나 것들을 경험할 때는.. 아! 내가 정말.. 여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죠.. 네..... (사례 F)

이와 같이 음악치료사는 내담자 성장, 관계적 성장, 치료사 성장을 통하여 지각한 의미 있는 순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이 나타났으며, 직업 동기 부여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5)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

앞서 의미 있는 순간의 요인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에 대한 영역은 치료사가 경험하고 지각하고 파악한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해서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1)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 2)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 그리고 3)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등 총 세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7 참조).

〈표 7〉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에 대한 범주 및 중심 개념 예시

범주 (Category)	중심 개념(Core Idea) 예시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담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함
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	다양한 이디엄, 화성, 스타일의 음악을 자유자재로 제공하기 위해서 피아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배우고 연습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치료사로써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생각함

①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 중에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일반적 범주로 도출되었다.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의 중심 개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담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함(사례 A)’, ‘내담자와 맞아야 되니까 내담자의 욕구를 잘 알아야 됨(사례 B)’, ‘계속 어긋나는 걸 경험하고,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생각함(사례 C)’,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지지해줌(사례 D)’, ‘아무리 치매 노인이라도 느낌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음(사례 F)’, ‘대상의 선호도를 알려고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려고 함(사례 G)’, 그리고 ‘치료사로써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환자들의 눈빛, 손짓, 발짓, 숨소리, 눈동자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함(사례 H)’ 등이 있었다. 다음은 예이다.

인덱스를 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저 때 저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 (사례 B)

내담자와 맞아야 되니까, 내담자의 욕구를 잘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중략) 내담자에게.. 맞춰주고, 그 내담자와 맞았을 때..... 그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략) 우선은... 내담자에게 필요한 음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공간을 다 채우는 것 보다는, 내담..자에게 뭔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제.. 제가 모든 것을 꼭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여길 들어와서 자기가 만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주려고 노력 하는 거.. 표현하게끔 기다려 주고.. (사례 B)

어떤... 치료적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뭔가.. 치.. 환자가 open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조금..... 어떤 치료 목적이 세워졌을 때에도 그거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D)

대상자의... 반응을.. 그 다음 세션 때 반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당시의 그.. 대상자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도 많이 염두에 두려고 하고.. 최대한 그 대상자...에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사례 G)

아! 치료사로써.. 정말... 촉각? 모든 오감을 다 사용을 해서 아!! 내가 더듬이를 탁 세우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음... 환자분들의... 그.. 클라이언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숨소리까지... 눈동자...까지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음...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사례 H)

환자 분의 history를 알아야 될 거 같고, 그 분의 학력이라든지, 살아오신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네.. 그런.. 거를 모르..고 접근..을 하면, 조금은... 첫 만남부터 뼈거덕 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원만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사례 H)

② 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

교차분석 결과 ‘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총 4 사례가 있으며, ‘다양한 이디엄, 화성, 스타일의 음악을 자유자재로 제공하기 위해서, 피아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배우고 연습(사례 A)’, ‘그 사람의 연주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음악적 재능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만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함(사례 B)’, ‘음악의 기술적인 연습을 하고, 음악적 확장을 하려는 노력(사례 C)’ 등이 있었다.

③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의 범주에는 총 4 개의 사례가 있으며, ‘의미 있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치료사 자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함(사례 B)’, ‘로그를 쓰는 게 도움이 됨(사례 C)’, ‘치료사로써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생각함(사례 F)’,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하여 음악치료사는 일반적으로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악 기술을 위한 노력과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음악치료사가 의미 있는 순간을 어디로부터 지각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지각할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들이 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치료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경험과 지각을 위하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사들은 내담자 성장, 관계적 성장, 그리고 치료사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에 의미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담자의 성장에 있어, 치료사는 내담자의 음악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치료사들이 치료목표가 달성되어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곧 ‘의미’라고 언급한 Frankl과 Frantz(2006)의 주장과 부합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사에게 있어 내담자의 변화를 음악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의 음악적 변화가 곧 내담자 성장이라는 Aigen(200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결과인 관계적 성장에서도 음악적 소통이 모든 사례에서 보고되었다. 이 또한 음악치료사가 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내담자와 치료사의 음악적 관계가 곧 치료적 관계라는 음악중심 음악치료에 대한 Aigen(2005)의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결과 내용에 범주화 되지는 않았지만, 치료사가 내담자와 음악적 소통을 통하여 의미를 지각하였을 때, 모든 사례에서 치료사는 즉흥연주를 하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서적 소통 및 절정과 몰입 경험에서도 대체로 즉흥적인 연주를 시도 하고 즉흥연주를 하면서 의미를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즉흥연주는 치료사가 가진 철학적 배경이나 음악적 기술과 상관없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는 창조성의 발현이 곧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는 Nordoff와 Robbins (2007)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음악치료사가 의미를 지각하는 세 번째 요인은 치료사 자신의 성장이다. 즉 치료사는 치료 안에서 감동, 심미적 경험, 인정, 보람, 즐거움 및 몰입 등 치료사 자신의 성장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의미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 반드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과만 연관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치료사의 변화와 성장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과 연결된다는 Bernard와 Goodyear(2004)의 주장을 지지한다.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치료사 성장에 관련한 영역이 도출된 것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행위에서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며, 이는 의미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임과 동시에 내적 동기일 수 있다는 Frankl(2005)의 주장과 연관하여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치료에서의 의미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치료사가 치료 안에서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네 번째로, 음악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은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직업 동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미의 발견이 자기 동기와 연관된다는 Frankl(2005)의 주장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사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순간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다(Frankl, 2005).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음악치료사가 이러한 노력을 주로 임상적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음악치료사가 의미 있는 순간을 주로 음악 안에서 지각했다는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사들은 의미 있는 순간을 음악적인 성장과 변화 안에서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노력을 음악을 통해 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윤주향(2010)의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료사가 가진 음악 기술 향상에 대한 어려움과 즉흥연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연관하여 해석해보면, 음악치료사는 음악 안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한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치료사는 음악적 능력 보다는 치료기술 함양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그러한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지각이 치료사에게 어떠한 성장과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도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음악치료 수료생 이상의 음악치료사 중에 출신 대학원을 다양하게 하여 8명을 최종 확정하여 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본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한 차례 예비 면담을 실시 하였으며, 감수자의 감수 이후에 최종 문항을 확정하고 본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면담에서는 치료에서 언제, 어떻게 의미 있는 순간을 지각하는지 질문하였으며, 그러한 의미 있는 순간에 느낀 것과,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치료사의 노력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모든 면담 자료는 필사본을 만들어서 사례 번호로 처리하고 CQ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와 두 명의 평정자 및 한 명의 감수자를 포함하여 총 네 명으로 구성된 합의팀은 8개 사례 중 우선 6개 사례로 영역과 중심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은 감수자의 감수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에 나머지 두 사례를 통하여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중심 개념을 범주화하여 그 빈도수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으로 표시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역시 감수자의 감수 이후에 다시 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사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내담자 성장과 관계적 성장, 치료사 성장이라는 세 요인으로부터 지각하였다. 음악치료사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음악적 변화, 전형적으로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를 통하여 내담자의 성장을 지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담자와 치료사의 음악적 소통과 상호 작용, 전형적으로 정서적 소통 및 절정과 몰입 경험 등을 통하여 치료에서 관계적 성장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료사 성장 요인은 치료사마다 변동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자신의 치료 철학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의미 지각 이후에는 치료사에게 몇 가지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는데,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 향상, 그리고 직업 동기 부여가 그것이었다. 이 모든 범주들은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지각이 치료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하여 음악치료사는 일반적으로 임상 능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음악 기술 향상과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는 등 음악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치료사가 치료에서 보고자 하는 바가 내담자의 음악적 변화와 내담자와의 음악적 소통임을 고려한다면 음악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변동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노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내적 성장과 관련하여 슈퍼비전과 교육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노력도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내담자가 아닌 음악치료사가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지각의 요인과, 그로 인한 영향을 치료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며, 총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 결과 내담자 성장과 같은 음악치료에서의 치료적 목적 또는 목표 달성이 효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악적 소통이나 치료사 자신의 성장도 치료사가 의미를 지각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난 것을 통하여 항상 치료사가 치료적 목적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치료에서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적인 ‘의미’와 치료적인 ‘효과’가 별반 다르지 않게 사용되어 왔지만, 치료에서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가 곧 치료적인 의미는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음악치료에서 음악적인 것이나 치료사 성장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치료사 연구와 의미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치료사에게 자신이 지각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하고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와 기억이 왜곡될 수 있기에, 회상을 바탕으로 한 면담에 있어 그 내용이 부정확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연구 참여자가 음악치료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에 따라 연구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가 바라본 치료에서 의미 있는 순간은 치료사가 지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치료에서 지각하는 의미와 치료사 지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합의팀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로부터 영역을 도출하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는 심층적으로 치료사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치료의 의미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에서 음악치료사들이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양적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동민 (2006). 창조적 음악치료. 정현주 (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331-370). 서울: 학지사.
- 김동민 (2008). 음악치료사의 음악적 개성화.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지, 5(2), 94-101.
- 김동민 (2009).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 애착유형, 자기 효능감, 정서적 유대, 평가불안 간의 관계: 음악치료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60-85.
- 김명권 (2009). 자아초월심리학 개관. 상담과 지도, 44, 57-68.
- 김영신 (2010). 즉흥연주 수업에서 음악치료 전공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즉흥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2), 1-32.
- 김진아 (2005).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한국예술치료학회지, 5(1), 137-157.
- 김진아 (2006).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정현주 (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371-408). 서울: 학지사.
- 김찬희 (1991). 의미치료의 이론에 따른 삶의 목적 수준과 부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영, 권영혜 (2009). 인지행동적 음악치료 활동이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단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0(1), 107-118.
- 송용민 (2007). 우연성 체험과 의미 체험에 대한 신학적 해명. 누리와 말씀, 21, 237-368.

- 심교린 (2007). 국내 음악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인적·인식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선화 (2008). 회상을 이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달 (2005). 몰입감 모델의 심리치료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35-55.
- 윤주향 (2010). 음악치료사의 음악중심 음악치료 즉흥연주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건반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 (2006). 신경학적 음악치료. 정현주 (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171-188). 서울: 학지사.
- 정미영 (2010). 삶의 의미 발견 과정에 관한 연구: 의미추구, 의미발견, 사생관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 발견을 통한 의미 추구하고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문제 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 연구, 8(4), 1309-1321.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현주 (2006). 음악치료의 철학적 기반. 정현주 (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13-57).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조현 (2008). 인지행동적 음악치료활동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분노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 10(2), 20-39
- 최병철 (2006a). 음악치료학 (2판). 서울: 학지사.
- 최병철 (2006b). 음악치료 이론의 발달과 치료사의 인식. 한국음악치료 학회지, 8(1). 1-12.

- Ahonen, H. & Houde, M. (2009). Something in the air: Journeys of self-actualization in musical improvisation. *Voices*, 9(2). Retrieved October 9, 2009, from <https://normt.uib.no/index.php/voices/article/view/348/272>.
- Aigen, K. (2002). *Playin' in the band: A qualitative study of popular musical styles as clinical improvisation*. New York: Nordoff-Robbins Center for Music Therapy, New York University.
- Aigen, K. (2005). *Music-centered music therapy*. Gilsum,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Aigen, K. (2009). Verticality and containment in song and improvisation: An application of schema theory to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46(3), 254-260.
- Amir, D. (1992). *Awakening and expanding the self: Meaningful moments in the music therapy process as experienced and described by music therapists and music therapy clients*. D.A., New York University, AAT 9237730.
- Ann, C. (2007).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 (*Carl Gustav Jung*). 박현순, 이창인 (공역). 서울: 학지사.
- Ansdell, G. (2002).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 (Music for life: Aspects of creative music therapy with adult clients)*. 권혜경 (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 Barnes, R. (2000). Victor Frankl's logotherapy: Spirituality and meaning in the new millennium. *TAC Journal*, 28(1), 24-31.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3rd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Bruner, R. A., Spitznagel, E., & Cloninger, C. R. (2007). The temporal limits of cognitive change from music therapy in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or dementia-like cognitive impairmen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Music Therapy*, 44(4), 308-329.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 Bruscia, K. E. (2006). 역전이의 이해, 역전이의 징후. In K. E. Brusica (Ed.), 음악심리치료의 역동성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pp. 61-98). 최병철, 김영신 (공역). 서울: 학지사.
- Corey, G. (2011).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8판)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이근배, 홍영근 (공역). 서울: Cengage Learning.
- Csikszentmihalyi, M. (2005). 몰입, FLOW -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 (역), 서울: 한울림.
- Elliot, D.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bry, J. B. (1993). 의미 치료 (*The pursuit of meaning*). 고병학 (역). 서울: 하나의학사.
- Frankl, V. E. (2005). 삶의 의미를 찾아서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이시형 (역). 파주: 청아출판사.
- Frankl, V. E., & Frantz, K. (2006).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정신분석에서 로고테라피어로 (*Im anfang war der sinn: von der psychoanalyse*

- zur logotherapie*). 김영철 (역). 칠곡: 분도.
- Gregory, D. (2002). Music listening for maintaining attention of olde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39(4), 244-265.
- Hans, I. (2001)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 빌헬름 딜타이. 최소인 (역). 서울: 한길사
- Hanser, S. (2002). *Music therapist's handbook*. St. Louis: Waren H. Green, Inc.
- Hessen, J. (1995). 현대에 있어서 삶의 의미 (*Sinn des lebens*). (4th ed.) 허재윤 (역). 대구: 이문출판사.
- Hill, C. E., Thom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ll, C. E., Thomson, B. J., Hess, S. A., Knox, S., Williams, E. N.,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Kaplan, R. S., & Steele, A. L. (2005). An analysis of music therapy program goals and outcomes for clients with diagnoses on the autism spectrum. *Journal of Music Therapy*, 42(1), 2-20.
- Kim, D. M. (2009). *Towards musical individuation: Korean female therapists' experiences in the Nordoff-Robbins music therapist certification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 Lesley University.
- Lee, C. (2003). *The architecture of aesthetic music therapy*. Gilsum,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Lesiuk, T. (2010). The effect of preferred music on mood and performance in a high-cognitive demand occup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47*(2), 137-155.
- Lim, H. A. (2009). Use of music to improve speech produc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oretical orientation. *Music Therapy Perspectives, 27*(2), 103-115.
- Madson, A. T., & Silverman, M. J. (2010).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relaxation, anxiety, pain perception, and nausea in adult solid organ transplant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47*(3), 220-233.
- Maslow, A. H. (2009). 동기와 성격 (*Motivation and personality*). 오혜경 역, 서울: 21세기북스.
- Nordoff, P. & Robbins, C. (2007). *Creative music therapy* (2nd ed.). New York: Nordoff-Robbins Center.
- Ormrod, J. E. (2009). 인간의 학습 (*Human learning*). 김인규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Priestley, M. (2006). 분석적 음악치료 (*Analytical music therapy*). 권혜경 (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 Robbins, C. (2005). *A journey into creative music therapy*.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Steger, M. F., Fran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ummer, L. & 정현주 (2006). 심상유도와 음악. 정현주 (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289-328). 서울: 학지사.

- Thaut, M. H. (2005). *Rhythm, music and the brain*. New York: Routledge.
- Wigram, T., Pedersen, N., & Bonde, O. (2002). *A comprehensive guide to music therapy: Theory, clinical practice, research, and training*. London, Philadelphia: Jessica Kongsley Publishers.

ABSTRACT

Music Therapist' Perception of Meaningful Moments in Music Therap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Sung ha, Hwa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music therapists' perception of meaningful moments in music therapy b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he study investigated when and how the music therapists perceive meaningful moments, how the therapists are affected by the meaningful moments, and what they make efforts for meaningful moments.

The researcher interviewed eight participants in depth.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CQR. The consensual team consisted of an auditor and three judges analyzed six cases first, and did stability test with the rest two cases. Later, the team drew domains and core idea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Music therapists perceived meaningful moments of clients' musical change and emotional change in clients' growth as well as musical communication, emotional communication,

interaction, and peak and flow experience in relational growth. In addition, they perceived meaningful moments of therapists' growth, which were diverse depending on their own philosophical orientation. Such therapists' own experiences inculcated themselves with the trust and confidence in music therapy, the improvement in self-worth and self-efficacy, and job motivation. Finally, therapists made multilateral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clinical capacity and musical skills, and inner growth for meaningful moments.

This is meaningful for searching the causes of meaningful moments music therapists perceived, the influence of the awareness of meaningful moments on the therapists, and the efforts of the therapists from therapists' perspectiv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music therapists to be professional.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

연구자: 황성하 전화: 010-6244-0404 이메일: my_call96@hanmail.net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치료에서 지각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의미 있는 순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며,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MP3 Player로 녹음될 것이며, 참여자는 필사본과 분석된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익명으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음악치료사들이 자기 탐색과 통찰을 통하여 전문 음악치료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는 인터뷰에 응하고 인터뷰를 녹음하여 기록하는 것을 동의한다.
나는 연구가 끝난 뒤 녹음된 내용이 소멸된다고 이해한다.
나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이 보장받는다고 이해한다.
나는 나의 이름이 연구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나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특정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질문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질문에 만족스러운 정도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

참여자 서명 : _____ 날짜: _____

참여자 서명 : _____ 날짜: _____

<부록 2> 중심개념 코딩의 예

Domain	Core Idea	Actual Phrase or Sentence
	함께 음악 안에 머물고, 의사 소통 하고, 상호 작용 함	A1 함께 음악을.. 음악 안에 머물러 있고, 음악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 하고 있으면
	내담자가 내 음악을 경청하고, 내가 내담자를 경청하는 것을 내담자고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낌	A1 내담자가 내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내담자를 들어주고 있다는 걸 내담자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
	나의 터치에 반응이 나오는 거라는 생각에, 뭔가 새로운 반응을 보여줌	A6 내가.. 어떤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반응들을 보여줄 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치료사 입장에서는.....
	내담자하고, 음악하고 나하고 삼박자가 이루어짐	A10 내담자하고, 한.. 음악하고, 나하고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관계적 성장	단순한 노래에 반응해서 나랑 악기 연주하고, 본인이 처음으로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얘기함	A14 정말 단순한 노래였는데, 거기에 반응을 해서...., 막 나랑 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중략) 본인이 처음으로 스스로 이.. 이런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그 때가 되게 의미 있었거든요.
	노래를 잘 하지 않고 애먹이는 내담자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흥얼거림	A15 노래를 잘.... 하지 않고, 정말.. 그.. 치료사를 애먹이는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뜻하지 않게... 막.... 내가 노래하라고 그래서 혼자서 흥얼거린다던가... 세션 안에서... 그럼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죠...
	그 순간에 아이랑 지금 뭔가 한다는 것을 느낌	A15 바로 그 순간에.. 애랑 나랑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여기서 선생님들과 뭔가 한가는 것을 서로 느낌	B4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뭔가 하고 있다... 이게... 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느낌을 경험 했을 때...
	세션에 집중이 안 되고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몰입하는 순간	B5 ‘오늘 세션 어떠하지? 어휴...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해!’ 이렇게 하다가... 세션 딱 시작했는데, 그 아둥이랑... 같이 세션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몰입하는 순간?... 그.. 순간...들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부록 3〉 교차분석의 예

Domain	Category	Core Idea
내담자 성장	음악적 변화	A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음악 안에서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됨
		B 자기가 하나의 음악 리듬, 패턴으로 연주하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게 되고, 그 틀 안에서 더 넓어진, 음악적인 경험을 함
		D vocal interaction을 유도하는 노래에서 내담자가 그 space에 반응을 함
		E 전혀 노래를 따라 하지 않던 아이가 인사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함
		F 처음의 간단한 melody가 멋있는 곡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됨
	정서적 변화	G 발성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는데, 아이가 듣고 있다가 ‘랄랄라’라고 노래를 시작함
		H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때려 부술 듯한 즉흥연주를 함
		B 아동이 무표정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고 나서 표정이 변화된 순간
		D 아동이 꼭 밀어내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됨
		E 어느 순간엔가 아이가 웃는 모습이 보임
F 올 때는 남에 이끌려서 왔지만, 마치고 갈 때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서지 않음		
H 그 분이 ‘왜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졌는지’를 다 토해내고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림.		